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돼지오제스키병 진단 오판 해프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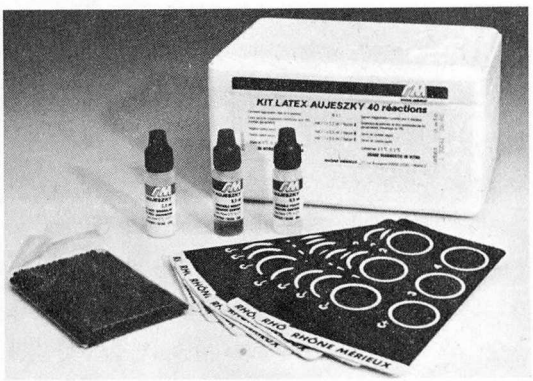
취재 : 김 동 성

정부가 돼지오제스키병 퇴치를 위해 일선 수의사들에게까지 간이진단키트를 확대 보급한지 얼마되지 않아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를 잘못 판정해 제주도내 일부지역 양돈인들이 일정기간 돼지출하를 못하는 등 피해를 입어 군당국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육지 반입모돈 130두중 20두를 의양성으로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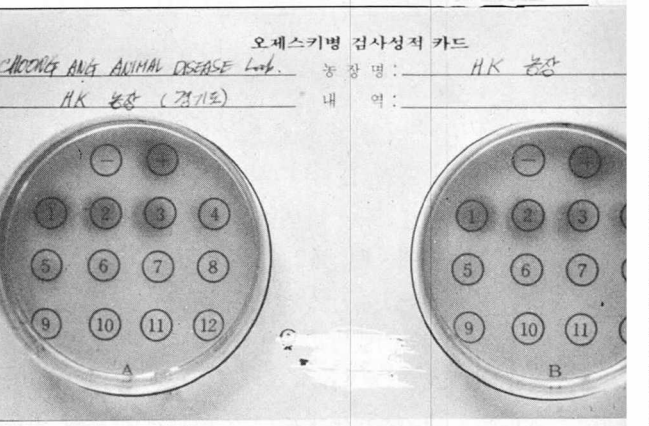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13일 제주도에 소재한 제남목장과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 지역 양돈인 14명이 경기도 김포군에 소재한 연주축산(현재는 폐업상태)에서 모돈 130두를 구입한 후,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가 이들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0월 13일 제남목장은 연주축산에서 모돈 38두와 후보돈 5두 등 43두를 구입했고, 한경면 저지리 지역 양돈인 14명은 모돈 87두를 구입했다.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는 10월 18일 이들 돼지중 제남목장에서 구입한 43두와 저지리 돼지 6두에 대해 1차 오제스키병 혈청검사를 실시했는데, 제남목장 돼지 43두중에서 7두, 저지리 돼지 6두



중에서 2두가 의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측은 저지리에서 구입해 온 87두 전부에 대해 2차 혈청 검사를 실시했는데, 2차 검사에서도 87두중 13두나 의양성으로 판명되었다.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는 이같은 결과를 제주도내 TV, 라디오, 신문사 등에 알렸고, 제주도내 각 매스컴은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는 해당 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해당군은 즉시 이 지역에 대해 돼지의 이동제한 등 격리, 차단조치를 취했다. 이 바람에 한경면 저지리 일대 양돈농가들이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료반입을 제대로 못하고, 출하해야 할 돼지를 적기에 출하를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들은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은 제주도에 돼지오제스키병이 최초로 침입한데 대해 놀라는 한편, 그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같은 진단 오진 사례는 제주도 외에도 이천, 김포 등에서도 있었다는 소문이다.

안양가축위생연구소, 의양성 20두 포함 130두 모두 음성으로 최종 판정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다.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는 육지(김포)에서 들여온 모돈 130두 전부의 혈청을 채취해 안양가축위생연구소(소장 : 박근식)에 최종 혈청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이를 혈청중화시험을 통해 면밀히 검사한 결과 130두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것이다. 따라서 안양가축위생연구소는 11월 초순께 전두수 음성 판정 결과를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와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와같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이를 20두나 의양성으로 판정했고, 또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매스컴에 알려 양돈농가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었느냐 하는 점이다. 또 정확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전에 충분히 실험도 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 판정오판 우려는 정부가 간이진단키트를 일선 수의사들에게 확대 보급하면서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점이다.

본회는 이와같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간이진단키트의 확대보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애초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없이 간이진단키트를 개방한 것이다.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는 이번에 라텍스 간이진단키트와 속성간이진단키트를 동시에 사용해 혈청검사를 했으며, 관계담당관이 "음성"인 것을 "의양성"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에서 제조한 속성간이진단키트와 동원신약이 프랑스의 롱메리사에서 수입한 라텍스 진단키트 등 2종의 진단키트가 보급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이들 두가지 간이진단키트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성간이진단키트를 이용하여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를 할 때는 검사딧슈에 나타난 정색반응(색깔)을 보고 양성과 음성, 의양성을 판정하는데, 이때 검사 순서가 틀리거나, 무리하게 조작을 하거나 정색반응을 잘못 읽을 경우 이번과 같이 판정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방법으로 검사를 할 때는 9가지 검사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재료의 조작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보통 3시간이 경과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또 양성과 음성을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반복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텍스 진단키트는 5~6분만에 결과를 알 수 있을만큼 신속하고 간편하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오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번처럼

"음성"을 "의양성"으로 판정한 것은 관계직원이 검사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검사딧슈에 나타난 정색반응 또는 라텍스 혈구응집 반응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양가축위생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속성간이진단키트와 라텍스를 이용하여 혈청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보면 음성으로 판정할 것을 제주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가 의양성으로 잘못 읽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과 일선 수의사를 상대로 진단키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진단키트 이용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간이진단키트 진단 오차율 예상보다 높다"

가축위생연구소의 또다른 관계자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오제스키병 오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밝히고, 「이와같은 오진은 검사를 하는 검사자나 간이진단키트의 성능에 모두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도가축위생시험소에 공급하고 있는 두가지 진단키트는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라텍스 진단키트의 경우 판정이 빠르고 편리한 대신 오차율이 생각보다 높아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것인지를 재검토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수입추천을 안해 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간이진단키트는 1~2%의 오차율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초발생지역에서는 반드시 중화시험으로 최종 검사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이진단키트의 확대보급과 관련, 「일선 수의사들이 실험을 많이 해 보지 않아 오제스키병 진단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돼지오제스키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돼지오제스키병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몇 개월 전에 일선 개업수의사와 농장관리수의사에게 진단키트를 확대 보급하면서 사전에 사용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해 앞으로 이와같은 판정 오판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이번처럼 판정이 잘못될 경우 해당 수의사와 농장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만약 해당농장이 종돈장일 경우 피해의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얼마전 경남에 소재한 모종돈장에서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 판정시비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결국 종돈장 명칭을 바꾼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관계당국에서는 돼지오제스키병의 간이진단키트의 보급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일선 수의사와 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들에 대한 간이진단키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확도 떨어지는 간이진단키트 보급 재고해야

또한 현재 보급하고 있는 간이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간이진단키트를 공급할 것인지도 신중히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당국에서는 간이진단키트를 확대보급할때 모든 양돈인들이 우려했던 점, 예컨대 농장주가 자기 돼지를 검사한 후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타 지역에 몰래 파는 사실은 없는지, 또 일선 수의사들이 양성으로 판정하고도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養豚